

민선 8기 광주시 첫 조직개편안 의회 통과 ‘난망’

시의회 “곳곳 손질 필요” 보류
수정안 심의 등 ‘산 넘어 산’
시민단체도 소통 부족 비판

민선 8기 광주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수정안 마련과 상임위, 본회의 의결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첫 인사부터 차질을 빚는 등 민선 8기 시정의 험로를 예고할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강기정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을 추진할 ‘신활력추진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했다. 심의에서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 신활력추진본부 비대화, 업무 중복, 팀 명칭의 불명확함 등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특히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부실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다운 의원은 “시장이 시정 연설에서 (의회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천명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충분히 심사할 수 없었는데, 의회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신활력총괄관, 관광도시과, 도시공원과, 수변

레저조성과를 둔 ‘신활력추진본부’에 업무가 집중되고 중복된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채은지 의원은 “신활력추진본부는 업무가 중복된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재생, 관광계획 수립, 공원 조성, 생태하천, 수변공간 등 업무가 너무 비대해 (업무 분담 등에서) 리스크(위험)가 크다. 조직 축소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필순 의원도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해 “핵심 현안을 한곳으로 모았는데, 비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이날 조직개편안을 의결하지 않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

다. 시의회는 2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현재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 통과, 25일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도 잇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기정 시장의 공약에 희생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며 “광주의 매력과 특색을 살린 세계적인 도시로 광주를 발전시켜 나갈 비전을 담아야 한

다”고 주장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화와 관광 업무 이원화·문화관광체육실 축소를 전제로 한 조직 개편안을 재고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화경제부시장의 위상과 역할이 사라졌는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한시적인 기구를 신설하면서 최소한의 문화행정 컨트롤타워 역할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하천 관련 업무를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원화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길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김철우 보성군수와 보성군 울포솔밭해수욕장을 방문, 해수욕장 방역 및 안전관리 현황, 장비 및 안전요원들의 복무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해수욕장 방역관리 만전”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보성 울포솔밭 해수욕장을 방문해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밀집한 경 차단 및 이용객 분산을 위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11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연간 이용객이 5만명 미만으로 해수욕장 안에서 이용객 간 밀집·밀접 접촉을 피할 수 있으며,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다. 목포 외

달도, 여수 방죽포, 보성 울포솔밭, 장흥 수문,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영광 가마미, 완도 예송, 진도 관매도, 신안 대광·짚뽕터 등이다. 전남도는 또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65곳 중 9곳을 제외한 56곳을 개장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65만명의 피서객이 전남지역 해수욕장을 방문했으나, 올해는 11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김 지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 만큼 해수욕장의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방역수칙 홍보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올해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이용객 분산 제도를 통해 해수욕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시의회, ‘방학 중 무상급식 무산’ 질타

이 교육감 상임위 출석
“시범운영 후 재논의”

광주시의회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약 사업이었던 방학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무산된 것에 대해 준비 부족을 들어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0일 임시회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방학 중 무상급식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심철의 의원은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 급식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도 안 됐고 (예산 편성권이 있는) 의회와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현 가능한지를 보고 해

야 하는데 무작정 언론에 내고 한다고 했다”며 “예산은 없는데 예산 검토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희을 의원은 “이 교육감은 취임 20여일밖에 안된 초선으로 교육행정도 갈음 단계이다”며 “방학 중 무상급식도 의지를 앞세우다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인수위 시절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예산까지 수립했는데 반대 등으로 인해 시범운영으로 전환했다”며 “시범운영 학교 등을 모니터링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방학 중 등교하는 돌봄 아이들은 도시락 또는 위탁급식이고 돌봄교사 1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

다”며 “급식실 환경도 열악하고 노동강도는 높아 처우개선과 급식실 현대화 등이 필요한 만큼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이 교육감은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150개교) 1·2학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공립유치원(병설 114원·단설 12원) 방과 후 유치원생 등 1만여명에게 무상급식(중식)을 하려고 했지만, 준비 부족과 안전 우려 등으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는 광주시의회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문제가 제기돼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가 교육감 출석을 요구했다. 시장과 교육감은 의회 본회의에만 출석하는 게 일반적으로, 상임위 출석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길용현 기자

이현창 도의원 “반복되는 호우 피해, 대책 마련을”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구례)은 지난 19일 제364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하천 대부분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반복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내 3,400여개 하천 대부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하고 있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예산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천에 퇴적된 토사가 적기에 준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천 흐름을 정체시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할 수 있다”며 “퇴적토 준설작업을 통해 하천 환경을 개선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는 지방하천이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오선우 기자

전남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키운다

농기원, 내달 5일까지 모집
50명에 5,000만원씩 지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0일 “2022~2023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예비 대상자를 내달 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80명을 예비로 선발한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50명으로 압축한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유행 공모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9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며,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사업비 지원은 도 농업기술원의 장농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50명에게 1인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유형은 신기술, ICT 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

등이다. 교육은 8월29일부터 9월29일까지 전남농업기술원 내 청년창업타운에서 이뤄진다. 창업역량, 사업계획서 작성, IR 고도화, 제품개발 교육 등을 84시간 진행하며 7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예비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청년창업타운 누리집(entown.kr)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농업·농촌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모델을 육성해 우수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www.hdamis.com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기업

현대아미스는 오늘도 정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경비구역

청소·미화

소독·방역

아미스(주)

아미스(주)

한솔엘리베이터(주)

(주)아미스개발

(주)한솔티엠에스

(주)아미스능력개발원

(주)도곡전기엔지니어링

메인기획협동조합

복지TV호남방송

광주 서구 상무대로 673번길 8 (마복동 173-8번지)

T.062)225-1050 FAX.062)463-7300

회장 김우열